제 204회 일본 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 인정투쟁의 중일관계 :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1949~1972)

강사 : 오승희 (吳承熿 : 고려대학교 글로벌연구원 연구교수)

시간 : 2016. 12. 06. 화. 12:00 - 14:00

2016년 12월 06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204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여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정투쟁의 중일관계 :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1949~1972)'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글로벌연구원 교수 오승희 발표자가 강연을 진행했다. 오승희 발표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석사 학위와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4월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논문작성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16년 2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CORE 사업 연구교수를 재임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소개하였다. 논문 제목은 '인정투쟁의 중일관계'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부터 중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1972년까지이다. 국가 승인을 둘러싼 정치성에 주목하고, 승인을 확대한 인정 개념으로 전후(戰後) 중일관계를 설명하였다. 인정투쟁은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괴리에서 발생한다. 발표자는 중국이라는 타자 인식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자기정체성을 국제규범형, 이념대립형, 지역협력형, 역사문화형으로 유형화하여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의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중국 인정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사례 분석에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는 패전국에서 독립국으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에는 아시아경제선진국으로서, 1971년 유엔에서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1972년에는 평화적 우호국가로서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이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으로 일본의 중국 인민정책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패전국 자아와 국제사회에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가 강력한 인정투쟁의 동기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과 대만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중국' 주장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특정 문제와 연계해서 설명할 것인가가 일본 외교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문제는 대두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의 응답>

질문 :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중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틀과는 다른 틀로 설명을 해주셔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 점을 알려주신 좋은 틀을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문이나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좀 더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즐을 던질 때, 왜 72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종래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중요하게는 미중간의 접근이라는 국제상의 큰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서 일본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정치를 하자는 서바이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 그 당시까지 안보불안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파워와 인터레스트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서 72년의 국제정치상의 일본은 통상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72년인가라는 것을 인정투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게는 완전히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하신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인정투쟁을 위한 움직임 같은 것들은 꼭 72년에만 생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전부터도 일본도 계속 이런 과정이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먼저 중국에 접근하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72년이라는 것을 꼭 인정투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제정치를 설명하려면 첫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기꺼이 파워나 인터레스트를 버릴 수 있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이 파워나 인터레스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하는데, 사실 그러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파워나 인터레스트를 얻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파워나 인터레스트보다 더 상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그것은 예컨대 국제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더 원초적으로 전제가 되어있고, 그것이 파워나 인터레스트를 보장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관계이지만 70년대에 글로벌한 면에서 국제법에 의한 지배가 있었는가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법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본인은 구성주의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은 영국학파 또는 국제사회학파의 설명하고 비슷한 것이어서 비슷한 부류이긴 하지만 이론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론적인 문제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중일관계를 설명할 때도, 어떤 것은 정밀하게 맞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현실이랑 유리된 듯한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현실적인 설명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론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만일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상황에서 일본도 인정투쟁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72년도의 중일관계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몇 년 간의 중일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 북한의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의 인정투쟁과 언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지 이러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의 서한을 설명하는 것도 외교문서를 최근에 들여다 본 사람들은 사실은 요시다의 이데올로기적인 중국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론주의자(?)였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답 : 감사합니다. 역시나 힘과 이익과 정체성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계속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힘과 이익보다도 정체성이나 인정투쟁을 내세울 수 있을가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수준의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포기했었다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중일 국제정상 이후에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차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상은 포기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대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현실을 어떤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2년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렸어야 했는데, 기존에 확실히 미중관계의 접근이 71년에 나타나면서 일본이 72년에 바로 국제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미중국교정상화는 79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는데 일본은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50년대 6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에 접근하려는 시도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하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이념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제약이 풀리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북한에 접근하지만 역시나 인정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본은 납치자 문제라든지 나름의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발의들을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인식해서 국제적인 맥락과 일본의 외교정책을 연결시키느냐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제적인 정체성을 일본이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72년의 경우에는 71년의 UN의 중국이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설명하는데도 외교정책을 발표하는데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미 71년에 UN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본이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71년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72년에 바로 이렇게 국제 정상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엮어냈는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가를 세밀히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애매하면서도 복잡하지만 한국보다는 전략적인 일본의 외교정책을 세밀하게 접근해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시다 부분도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 발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투쟁을 중일관계에서 보면 나름 설득적이지만, 그 시발점을 전후 50년대부터 살펴보셨는데 전전(戰前)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대의 서구동점(西歐東漸)의 시기에 일본이 아시아주의를 처음 제창했었고, 일본이 국제연합

에 탈퇴한 직후에 중국에 계속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힘을 합쳐서 대미항전과 같이 아시아공영권을 만들어보자는 논리가 80년대 논리가 아니라 근대 이후 계속 있었던 논리적 축적이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인정투쟁을 역사적인 부분을 약간 고려하셨는데요. 그것을 전전까지 가지고 올라가셔야지 전후에 의해서 역사적인 요소로 나왔다고 배경을 합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정투쟁을 국제관계모델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국제관계의 배타적인 모드는 중소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고, 미소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고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복합적 정세변화와 다 관련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인정투쟁 관계가 아니라 더 복잡한 포섭과 배제의 관계입니다. 인정투쟁만 가지고 이런 국제관계를 말하기에는 너무 좁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가 1차적인 탈냉전의 시작이었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타이완이 배제되고 있고, 예를 들어 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베트남 전쟁 지원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소련을 견제하려고 서방세계와 손을 잡았고 그래서 베트남에 간 겁니다. 모든 그러한 복잡한 관계를 같이 설명하지 않으면 왜 70년대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설명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 : 말씀하신 대로 제 연구가 계속 중일관계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인정투쟁에 대한 연구보다 중일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중일 관계에 매몰되기는 했습니다. 일단 제 연구 주제는 전후 중일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다가 인정투쟁이라는 이런 이론적인 논의를 접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정투쟁은 국제관계에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논의는 2012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영향력이 아직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2012년 이후에 이러한 국제관계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례에 있어서는 중일관계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어떤 다른 이론적인 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례를 가지고 많이 연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중일관계를 벗어나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논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단 저는 중일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역시나 보통국가로 인정받고 싶고, 아직은 그런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더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가능할 것 같고, 어떠한 범주에서 이 논의를 연결해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중일관계에 벗어날 것일까. 사실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